

亞細亞시멘트 堤川工場の 어제와 오늘 그리고 來日



李 昌 茂

〈亞細亞시멘트工業(株) 堤川工場管理部長〉

1. 序

지난 11월 20일 우리는 많은 從業員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會社創設第15週年, 工場竣工第14週年記念式을 가졌다. 그것은 14年間の飛躍의인 工場發展에 對한 自祝의 자리임과 동시에 오늘의 이 經濟難局을 슬기롭게 克服해 나가기 위하여 全亞細亞人의 힘을 集約하고 意志를 굳게 다짐하는 뜻깊은 약속의 모임이었다.

工場竣工第14週年 — 결코 길지 않은 歲月이다. 그러나 무릇 現存하는 모든 事物에는 그 나름의 歷史가 있다. 길면 긴대로, 짧으면 짧은대로 그리고 찬란하면 찬란한대로, 조촐하면 조촐한대로 흘러가는 時間의 씨줄에다 땀과 피의 날줄을 넣어 엮어 낸 그 나름의 아름답고 소중한 무늬가 있다. 비단결일 수도 혹은 무명일 수도 있는 歷史의 무늬 — 그럼 亞細亞시멘트堤川工場の 14年 歷史의 무늬는 과연 어떤 것인가? 어제의 發展相과 오늘의 現住所 그리고 來日의 靑寫眞을 간단히 그려 본다.

2. 亞細亞시멘트 堤川工場の 어제

1) 會社創設 및 工場竣工

1960年代 — 오늘날 世界 속의 韓國으로 浮

上한 밑바탕이 되었고 高度經濟成長의 神話를 創造한 出發點이 되었던 1960年代. 祖國 近代化와 民族中興이라는 歷史的 大命題를 위해서 政府가 主導한 第1, 2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成功의인 遂行으로 온 國民이 希望찬 建設의 메아리 속에서 自信感을 가지고 일하고 또 일하던 때 急增하는 시멘트 需要를 充足시키고 持續的인 經濟發展을 推進하기 위하여 國家基幹産業의 育成・發展이 무엇보다도 時急하다는 國家的 必要性에 副應하여 1965년 6월 23일 忠北시멘트가 設立되고 그해 忠北 堤原郡 松鶴面 立石里의 황무지 1만평 위에 堤川工場の 起工式이 있었다.

日本會社와 契約으로 1年餘에 걸친 建設 끝에 1966년 12월 13일 Lepol Kiln 2基에 年間 시멘트 生産 40萬톤에 달하는 工場竣工을 보게 되었고 그날 竣工式에는 異例的으로 故 朴正熙大統領께서 特別 기동차편으로 來工하시어 技術陣의 勞苦를 致賀하고 從業員을 激勵하여 주셨다. 지금 생각해도 참 영광스러운 일이다.

2) 商號變更과 工程改善 그리고 增設

1968년 忠北시멘트가 여러가지 어려운 内外與件에 直面하게 되자 現 李東寧會長께서 시멘트 産業의 발전이 바로 國家經濟發展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투철한 國家觀과 企業觀을 가지고 이를 引受하시어 1972년~1974년까지 3차에 걸쳐 Lepol Kiln에 대한 工程改善을 斷行, 年間 20萬톤을 增産하게 되었고 1973년 現 李丙文社長께서 오래 몸담았던 軍生活를 떠나 社長으로 赴任하시면서 “나와 會社 그리고 國家를 위하여 獻身・努力하자”라는 社訓을 提唱하시고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는 의미에서 商號를 亞細亞시멘트工業株式會社로 變更하였다. 1974년 프랑스 Polysius社와 契約하여 增設을 斷行, 1976년 11월 20일 年間 시멘트 生産 110만톤 규모의 Prepol Kiln 1基를 設置完了함으로써 약 2年半에 걸친 增設工事を 마무리짓고 堤川工場은 그동안의 면모를 一新하여 年間 시멘트 生産 170만톤에 달하는 名實相符한 大單位 시멘트 工場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3) 業界 最初의 QC 活動導入으로 稼動力 增大

1969년 10월 시멘트 業界 최초로 QC 活動을 시작하여 3개 시범 分任組를 조직하고 1년후 38개 分任組로 擴大하여 활발하게 活動한 結果 1971년 5월의 全國 QC 發表大會 우수상을 비롯하여 수차례 걸쳐 많은 상을 획득한 바 있다. 그 후 分任活動은 工場새마을運動과 連結 1980. 1. 1일에는 63개 分任組로 재편되어 現在 各 部門에서 生産 增大, 原價 節減, 作業環境 改善에 注力하고 있으며 1978년에는 全從業員이 4박 5일동안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새마을 教育을 이수함으로써 精神改造를 통한 工場새마을運動의 土着化가 착실히 進行中이며 各種 提案制度의 活用과 大節約 運動의 展開, 自然保護運動 등에서 많은 參與와 實效를 거두고 있다.

3. 堤川工場의 오늘

1) Prepol Kiln Know-how 및 Coal 混燒 成功

1979년 8월 그동안의 技術蓄積을 바탕으로 增設된 Prepol Kiln의 Know-how 工事に 착수하여 약 1個月만에 成功的으로 完成함으로써 年間 시멘트 10만톤을 增産하게 되어 當工場은 年間 180만톤의 시멘트를 生産하기에 이르렀고

1973년부터 몰아부친 Oil Shock의 압박이 점차 加重되자 이에 效果的으로 對處하기 위하여 Coal 混燒技術開發에 착수, 약 1年間に 걸친 研究 끝에 지난 8월 Coal 混燒工事を 시작하여 成功的으로 試運轉을 마침으로써 國內에서 두번째로 脫石油燃料 轉換에 개가를 올렸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리리라”는 聖書의 가르침처럼 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의 어려움을 打開해 나가겠다는 끈질긴 執念의 結果로서 막대한 原價節減을 가져온 當工場의 자랑스러운 記錄이 아닐 수 없다.

2) 石灰石 鑛山의 早期開發

1977년 4월 開發을 시작하여 약 30億원을 投入 1979년 12월에 開發을 完了한 當工場의 石灰石 鑛山은 매장량 약 6억 4천만톤, 가채광량 약 4억 3천만톤으로 石灰石 品位 平均 84% 이상을 마크하는 良質의 鑛山으로서 現 採石 規模가 年産 3백만톤임을 감안해 볼 때 尙後 약 150年間 採鑛이 可能하여 品質管理面에서 좋은 展望을 보여 주고 있다.

3) 集塵機 補充으로 公害防止

그동안 인근 주민이나 매스컴으로부터 항상 關心의 표적이 되어 온 公害問題는 새 憲法에도 明示된 바 있는 環境權에 관한 문제로서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工業化 過程에서 부수적으로 派生되는 대기 오염이나 수질 오염 등의 公害는 福祉國家를 指向하는 現時點에서 반드시 改善되어 우리 모두가 깨끗하고 快適한 環境 속에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當工場에서는 이전부터 이점에 유의하여 분진 지역마다 Bag filter를 설치하고 1979년 5월에는 7億원을 投入 Lepol Kiln에다 전기 집진기를 설치하여 거의 완벽하게 公害防止 施設을 갖추어 깨끗한 環境을 유지함으로써 對住民 關係를 改善하고 從業員의 健康增進에 이바지하고 있다.

4) 堤川工場의 來日

「來일이 오면 또 내일이 오고 또 내일이 온다」고 맥베드는 허공을 향해 팔을 벌리고 외쳤다. 어

쩌면 人間에게 있어서 내일이란 永遠히 내일로서 存在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톨스토이도 「人間에게 가장 重要한 때는 지금 이때」이며 「가장 重要한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이라고 말했으리라. 그렇지만 大部分의 사람들은 來日에 對한 希望을 먹고 살아 간다.

오늘의 아픔을 견디는 것, 그 8割은 사실 來日에의 기대 때문이다. 亞細亞시멘트堤川工場의 來日 —— 물론 가을 하늘보다 더 푸르리라. 그러나 그 푸른 靑寫眞 가운데서 몇가지 꼭 잡고 넘어 가고 싶은 게 있다. 그 첫째가 無災害運動의 強化로 安全事故를 豫防해야겠다는 것이다.

80년 1월 1일 실시한 무재해운동의 결과로 昨年 公傷 件수에 比해 무려 50%가 低下된 24件을 記錄하고 있다. 물론 稼動率이 低下된 理由도 있겠지만 無災害運動의 成果는 상당히 크다.

둘째가 社員 厚生福祉의 強化이다. 현재 50% 支給되고 있는 장학금을 100% 引上하고 집없는 從業員을 위한 社宅增築, 獨身者를 위한 기숙사의 오락 시설 등을 補完하여 全從業員이 한 가족처럼 생각하고 工場 일을 내 일처럼 일하는 健全한 企業風土의 造成을 위하여 全亞細亞人이 一心努力할 때 亞細亞의 來日은 더 활짝 열리리라.

앞으로 전개될 새역사는 바로 우리 자신의 역사요, 멀지 않아 건설될 민주복지사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손과 우리 후손들이다.

전 대통령, 새마을지도자대회(1980. 12. 10) 유시에서

81年度 施政目標

- 1. 國家安保의 強化
- 1. 民主政治의 定着
- 1. 經濟安定과 成長
- 1. 奉仕行政의 具現

局 政 指 標

- 1. 民主主義의 土着化
- 1. 福祉社會의 建設
- 1. 定義社會의 具現
- 1. 教育革新과 文化暢達